

대성호·창진호 실종 선원들 어디에...

헬기·함정 등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수색 성과 없어 26일 '청해진함' 사고해역 도착... 수중탐색 진행 계획

제주해경이 최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대성호(29t·통영 선적) 화재 사고와 창진호(24t·통영 선적) 전복 사고로 발생한 실종 선원들을 찾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색에 나서고 있다.

2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경비함정을 포함한 민간어선 등 18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대성호와 창진호 사고 해역 수색작업에 나섰다.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현재까지(26일 오후 6시 기준) 실종자는 대성호 선원 11명과 창진호 선원 1명 등 총 12명이다. 이에 해경은 함·선 등 22척과 항

공기 4대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에는 3200t급 해군 청해진함이 대성호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청해진함에는 수심 500m까지 운용 가능한 심해구조잠수정(DSRV)과 수심 3000m까지 진입할 수 있는 수중무인탐사기(ROV)가 탑재돼 있으며, 헬기 이착륙도 가능하다.

청해진함은 당초 이날 대성호 선수로 추정되는 물체에 대해 정밀 탐색할 예정이었으나 사고 해역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수중 탐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경은 기상 상태가 좋아



해경이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실종 선원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제공

면 해군 등과 협의해 수중 탐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성호 사고의 경우 지난 23일 이뤄진 선미 부분 감식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선미보다 앞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공통 소견에 따라 물에 가라앉은 선수 인양

작업이 끝나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오전 창진호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정밀 수색에 나선 결과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25일 오후 6시쯤 창진호가 물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오전 창진호 선체에 연결된 120m 길이의 로프와 부이 등을 찾은 수색 작업에 나섰다.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기상 상태가 좋지 않고 여전히 최대 4m의 높은 파도가 몰아치고 있어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상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침몰여부를 파악하고 수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도, 감귤 소비지 도매시장 특별단속했더니... 판매금지 감귤 등 비상품 유통 '여전'

6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내달 4일까지 특별 단속

노지감귤 가격 회복을 위한 농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품 유통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감귤 소비지 2개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6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내용을 보면 출하연합회 결의사항으로 판매가 금지된 45mm이하의 극소과 감귤이 일부 유통되고 있었으며, 기준당도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감귤유통과, 일부 중결점과 유통행위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는 적발된 6곳(농협 1, 유통인 5)에 대해서는 감귤조례에 의거 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2L과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게 평가

됨에 따라 최저가에 거래되는 등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소비지 도매시장 특별점검을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며,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기간을 12월 4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노지감귤 평균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5kg 상자당 6700원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조생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품질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며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인 등 출하자들의 품질관리가 이뤄진다면 가격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저급 품감귤 유통 차단만이 위기의 감귤 가격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지해 극소과, 중결점과 등 저급품감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철저히 선별, 품질이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도록 감귤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조상훈기자



출어 준비하는 어민들 26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어민들이 풍랑주의보로 잠시 멈췄던 조업을 하기 앞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다양한 놀이 통해 쉽게 과학을 배워요" 과학탐구체험관 개관



놀이를 통해 과학을 만날 수 있는 제주과학탐구체험관이 25일 문을 열었다. >> 사진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운영 하는 제주과학탐구체험관은 도내 학생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구성됐다. 1층부터 3층까지 역동·발견·도약의 큐브로 나뉜 체험실에는 과학현상과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과학체험물 112종이 채워졌다. 이곳에선 왜 거꾸로 움직일까, 물은 왜 휘어질까,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등의 다양한 질문과 함께 과학문화 접할 수 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관계자는 "체험관을 함께 즐기고 배우는 과학문화의 중심으로 모든 분들이 즐거움을 나누는 체험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구간 과속단속카메라 교통사고 감소 '톡톡'

산록도로변 4개 지점 설치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는 대형 교통사고가 잦았던 산록도로변에 대해 구간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한 결과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산록도로변 구간은 지난 5년간 3명의 사망자와 19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연평균

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구간 과속단속카메라 2개소를 설치해 올해 1월 서귀포경찰서에 인계했다.

또 시는 올해 7월에도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탐라대학교차로~광평교차로 지점 2개소에 구간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구간 과속단속카

메라를 인수받아 운영한 결과 올해 10개월 동안 교통사고는 3건 발생(중상 2명, 경상 2명)해 지난해 대비 40%, 지난 5년 평균 대비 31.8%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해 내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 4개소에 대해 구간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응급실 간호사 때린 40대 여성 징역 2년

제주시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

러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제주시내 병원 응급실에서 초진을 마치고 침대대 누워있던 자신을 이동시키려는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뺨을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석 판사는 "반성하는 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갑질 교수 엄중 처벌하라" 의료연대본부 제주 성명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갑질·상습 폭행한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년간 폭언, 권한 남용 등으로 직원들을 괴롭힌 A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20일 예정돼 있다"며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죄질이 불량한 갑질 A교수 사건을 엄중 처벌해 우리 사회의 불법 부당함을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석기자

공영버스 비정규직 기사들 정규직 전환·고용승계 촉구

제주도공영버스비정규직공무원노조는 2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공영버스 비정규직 운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영버스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전원들은 고용불안 뿐만 아니라 버스준공영제 업체 운전원 대비 매우 낮은 임금과 처우를 보장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채용은 공영버스 공공성 약화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석기자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흑염소 체험농장

제주 편백숲 최대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태그 매월 추첨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피톤치드(자연항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흑염소탕 / 전골, 수육 / 육회, 숯불구이 / 떡갈비

노린내 나지 않는 염소고기 식당 납품 가능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흑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14번지 T.064.805.5099 T.064.764.6678